

제343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3 호

국회 사무처

2016년6월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3.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상정된 안건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진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79인 제출) 1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정진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79인 제출) 1
3.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2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강길부 의원, 안상수 의원,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에 이장우 의원, 도종환 의원, 송기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박인숙 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윤종필 의원, 정춘숙 의원, 신용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 정부로부터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6일 정진석 의원 등 3인 외 279인으로부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

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진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79인 제출)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정진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79인 제출)

(10시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이상의 2건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6년 6월 20일·21일·22일 3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6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6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세균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0시07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3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근접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 낸 값진 결실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라고 합니다. 잘 준비된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10%를 넘어서고 체감 실업률이 30% 수준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습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 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다른 이름은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온 대한민국이 직면한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살률,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OECD 평균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두 사람 중 한 분은 절대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면 대학 입학의 목표로 해서 학원가를 헤맬니다. 부모님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우리는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암담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을 멈추고 추락할 것인가, 자랑스러운 성취의 역사를 계속 이어 가면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

을 대면할 용기입니다.

우리는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열망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IMF와 OECD의 예측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설령 1% 더 성장한다고 내 삶이 과연 더 풍요로워질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일 밤 곱씹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장의 페달을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할 만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현실과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

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대체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에게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28일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비정규직 김 군이 사망했습니다.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던 김 군의 월급은 왜 1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을까요?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서울메트로 퇴직자들 월 440만 원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어 주다 보니까 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월급이 고작 14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인 1조로 일하기가 불가능한 적은 인원만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현장 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이른바 메피아의 3분의 1도 안 되게 주었습니다. 철밥통의 대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평균 월급 319만 원입니다. 비정규직 137만 원입니다. 기아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 연봉 1억 원 받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사 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한겨레 신문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봉건 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중적 노동시장입니다.

IMF는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왜곡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OECD는 지난 5월에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저성장, 낮은 생산성과 함께 이중적 노동시장을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적시했습니다.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해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의역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메트로는 얼마를 벌어서 어디다 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얼마씩을 가져가는지, 하청업체는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상세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지도가 그려져야만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이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입니다.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주어야 된다’, 이른바 상향 평준화입니다. 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차 협력업체 직원도 기아차의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1억 연봉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달콤한 주장입니까?

그러나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상향 평준화 주장은 하위 90%에 있는 사람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향 평준화를 꿈꿀 수는 있겠지만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바로 이 중향 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하기가 쉽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조차도 최근에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입니다.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층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정년을 2~3년 연장했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우리 대

한민국의 미래,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MF와 OECD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정규직 상층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자본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외래 어종이 먹어 치우는 양이 많습니다. 토종 물고기가 멸종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일부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관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립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민주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 민주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는 공정한 물안의 자유경쟁입니다. 탈법·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입니다.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기업의 총수 부인들이 관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맡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순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딸까지,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지 친족이라고 직접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우리 기업의 캐파가 너무 커졌습니다. 세계 경쟁에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수 일가가 서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자꾸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감시받아야 합니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

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머리 좋고 성실한 엘리트들이 20년, 30년 걸려서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의 30대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미비한 것 사실입니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큼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체제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변에는 인구 구성의 변화,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 그 당시에는 60세에 은퇴하고 오륙 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연금을 낼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연금을 받아 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앞으로 70년간 매년 10조 원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총당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 보면 이런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열망과 지원이 오늘의 대기업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만 탓한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지요. 상층 노동자들도 변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경제수준 높고 복지, 사회안전망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 강하고 소득이 평등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이들의 역사는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입니다. 기업과 노조가 함께 양보한 역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진 기업과 조금이라도 더 가진 노동자들이 양보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바로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의 삶과는 유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의 아픔, 국민의 아우

성에 우리가 먼저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국회가 일을 좀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 달라라는 것입니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누기, 편가르기, 대결정치, 터무니없는 불쌍사나운 모습 이제 좀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회발개헌 논의가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몇 가지 주요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앞으로의 산업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단지 임시방편의 심폐소생술로 머물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개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생명과학,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안보 사안입니다. 북한은 굶기야 지난 5월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했습니다. 북한 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자위적 핵무장론까지 분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현실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와 교역해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바로 나서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자초하게 되는 게 될 겁니다.

해답은 바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핵우산을 펼쳐 들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한미 동맹관계를 더 돈독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핵무기를 안고 굶어 죽을 것인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것인가,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우리가 구멍을 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의회 연두연설에서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 3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경제 제재에 결국 핵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라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정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을 언제까지 속이고 탄압하면서 이 사악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그 종언을 미리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IS는 최근 주한미군과 북지단체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해서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외국인 근로자 7명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국제적 테러 위협이 국민들의 안방까지 노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IS의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면밀한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해 5도 해역과 한강 하구의 어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선을 포함한 대응 역량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강남역 피살 사건은 불안한 사회, 분노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평범한 2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 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심각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습 범죄의 동기와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CCTV 확충, 범죄 취약지대 진단, 치안인력 확보 등 치안 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엄정한 사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슴기 살균제의 피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틀어 놓은 가슴기가 결국 아이들을 해쳤다고 절규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은 피해 가족들에게 가슴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왜 2001년 한국에서만 가슴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나왔는지, 왜 2003년부터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슴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보상 문제를 가족들과 제조사 사이의 싸움으로 맡겨 놓은 이유도 규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엇그제 제 지역구에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보육은 우리 미래세대를 보살피고 키워 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현장 방문과 함께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만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국제공항으로 건설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특정 지역의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5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국익을 앞세운 위대한 대타협이라며 그 의미를 높이 평가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시·도지사들, 지역분들 모두 대타협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과 시·도지사님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수 정치의 본령은 책임 정치에 있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평범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일 모두가 우리 정치가 책임을 지고 해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진실을 외면하고 표만을 위한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부터 하겠습니다.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에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 우리 새누리당부터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정진석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10시 정각에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대표의원과 이인영 의원 소개로 공주·부여·청양 지역 주민과 충주상업고등학교 학생 142명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제343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2016. 6. 20.~2016. 7. 6.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6.20.(월) 10:00	1.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출석요구의 건 2. 국정에 관한 교섭 단체대표연설	○ 새누리당
6.21.(화)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 단체대표연설(계속) 2. 국회사무총장(우윤근) 임명승인안	○ 더불어민주당
6.22.(수)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 단체대표연설(계속) ※ 휴회결의	○ 국민의당 ○ 6.23.~ 7. 2. (10일간)
6.23.(목) ~ 7. 2.(토)	휴 회(10일간)	○ 위원회 활동 -현안보고, 법률안 등 안전심사
7. 3.(일)	공 휴 일	
7. 4.(월) 10:00	1. 경제에 관한 질문	
7. 5.(화) 10:00	1. 정치·외교·통일· 안보·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7. 6.(수) 14:00	1. 안전심의	

○출석 의원(286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강훈식 강경대 강고용
 광대훈 광상도 광권미 광권석
 권성동 권은희 권권철 권승협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규환
 김광립 김광수 김규환 김두관
 김도읍 김동철 김병관 김병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삼 김상훈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성수
 김상희 김석기 김성찬 김성태
 김성식 김성찬 김순례 김영진
 김세연 김수민 김영재 김종대
 김영우 김용태 김정훈 김종태
 김영호 김정훈 김종인 김진태
 김정재 김종인 김종로 김태년
 김종석 김중훈 김태년 김해영
 김종훈 김중로 김태년 김해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표 김현미
 김한정 김한표 김현미 김희찬
 노웅래 노희찬 김희상 김경미
 문진국 문희상 박경미 박맹우
 민홍철 박경미 박맹우 박성중
 박대출 박병석 박선숙 박용진
 박범계 박완수 박완주 박지민
 박인숙 박재호 박준영 박지원
 박주선 박주현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원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송신경 송민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호영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여오
 양승조 어기세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위유기 원유동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유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중오 윤중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석현 이명주 이상민
 이석용 이권정 이우현 이원득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욱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훈
 이학영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중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경환(국) 최윤열 최인호 추경호
 최연혜 표창원 한선교 한정의
 추혜선 표홍일 표영표 홍영철
 함진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개의 시 재석 의원(243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강훈식 강경대 강고용
 광대훈 광상도 광권미 광권석
 권성동 권은희 권권철 권승협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규환
 김광립 김광수 김규환 김두관
 김도읍 김동철 김병관 김병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삼 김상훈
 김부겸 김삼화 김성수 김성수
 김석기 김성찬 김순례 김영진
 김영재 김종대 김종태 김진태
 김태년 김해영 김태년 김해영
 김한표 김현미 김희찬 김경미
 김맹우 김성중 김용진 김지민
 김지원 배덕광 변재일 설훈원
 손혜원 송영길 송민근 신창현
 신안호 안호영 안여오 오영훈

김승희 김영호 김정재 김종석 김중로 김학용 김현아 노회찬 민경욱 박광운 박맹우 박선숙 박용진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서청원 소병훈 송기헌 신동근 심상정 안철수 엄용수 오신환 원유성 유의동 윤상현 윤종오 윤후덕 이상민 이은권 이재정 이종명 이철규 이태규 인재근 장석춘 전현희 정동영 정양석 정종섭 제윤조 주호
 김영우 김용태 김정훈 김종인 김진태 김한표 나경원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명재 박성중 박인숙 박주선 박찬우 백혜련 서형수 손금주 송석준 신보라 심재권 안호영 여상규 오영훈 유기준 유승민 유재중 윤영석 윤종필 이동섭 이언주 이은재 이정미 이종배 이철우 이현재 임이장 장정혜 정병국 정진배 조훈상
 김영주 김재경 김중대 김종태 김진표 김해영 남인순 문진국 민홍철 박대출 박범계 박순자 박재호 박주현 배덕광 변재일 설훈손 송옥주 신용현 심재철 양승조 염동열 우상호 유동수 유승희 윤관석 윤영일 윤한홍 이명수 이인영 이진복 이철희 이혜훈 임종성 장제원 전희경 정성호 정운찬 정춘숙 조주진
 김영진 김정우 김종민 김종훈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문희상 박경미 박덕흠 박병석 박완수 박정영 박준영 백승주 서영교 성일종 송기석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세정 우원식 유민봉 유은혜 윤상직 윤재옥 윤호중 이상돈 이우현 이장우 이종구 이채익 이춘석 이훈장 병완수 정갑윤 정세균 정재호 정태욱 조원진 주승용 배

천정배 최명길 추경호 한정애 홍일표 최경환(국) 최연혜 추혜선 함진규 홍철호 최교일 최윤열 표창원 홍영표 황영철 최도자 최인호 한선교 홍의락
 강길부 강효상 광대훈 권성동 기동민 김광림 김도읍 김무성 김병욱 김상희 김성식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중대 김중태 김진태 김태흠 김해영 나경원 도중환 민경욱 박광운 박맹우 박선숙 박완주 박준영 박홍근 백혜련 서형수 손금주 송석준 신경민 신재철 안철수 염용영
 강병원 강훈식 광상도 권은희 김경수 김광수 김동철 김민기 김부겸 김석기 김성찬 김수민 김영진 김재경 김중민 김중회 김진표 김학용 김현권 남인순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명재 박성중 박용진 박주민 박지원 배덕광 변재일 설훈손 송영길 송동근 신창현 안규백 안호영 염동열 오제
 강석진 경대수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규환 김두관 김병관 김삼화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영춘 김정우 김종석 김중훈 김철민 김한정 김현미 노웅래 문진국 민홍철 박대출 박범계 박인숙 박주선 박찬대 백승주 서영교 성일종 송기석 신보라 안민석 양승조 오세정 우원식
 강석호 고용진 권석창 금태섭 김관영 김기선 김명연 김병기 김상훈 김성수 金成泰 김승희 김영호 김정재 김중인 김중로 김태년 김한표 김현아 노회찬 문희상 박경미 박덕흠 박병석 박완수 박재호 박주현 박찬우 백재현 서청원 소병훈 송기헌 신상진 심재권 안상수 어기구 오신환 우원식

○산회 시 재석 의원(280인)

원 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혜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청가 의원(9인)
 강창일 김성원 박영선 이양수
 이현승 정유섭 추미애 하태경
 홍문종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구기성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일부장관 홍용표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방부장관 한민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출석 정부위원
 교육부차관 이영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보고사항】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강석진(보) 권석창(농) 김도읍(정) 김명연(보) 김성원(정) 민경욱(미) 성일종(보) 오신환(법) 이만희(농) 이양수(농) 정진석(국)	새누리당	2016. 6. 13.
	강병원(환) 기동민(보) 김한정(농) 박완주(농) 백혜련(법) 송기현(산) 안호영(국토) 이상호(국) 이재정(미) 이훈(산) 최인호(국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정) 박지원(법) 이용호(안) 장정숙(안)	국민의당	
	노회찬(법) 홍의락(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권성동 김진태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새누리당	2016. 6. 13.
	금태섭 박범계 백혜련 서영교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이용주	국민의당	
	노회찬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정 무	김도읍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한표 유의동 이진복 정태욱 지상욱 홍일표	새누리당	
	김영주 김해영 민병두 박용진 박찬대 이학영 전해철 정재호 제윤경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박선숙 채이배	국민의당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기획재정	김광림 박명재 심재철 엄용수 이종구 이현재 이혜훈 정병국 조경태 최교일 추경호	새누리당	
	김두관 김부겸 김종민 김종인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박영선 송영길 윤호중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박주현 박준영	국민의당	
	유승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강효상 金成泰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배덕광 송희경 신상진 이은권	새누리당	
	고용진 김성수 문미옥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유승희 이상민 이재정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국민의당	
	윤종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교육문화 체육관광	곽상도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염동열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배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새누리당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송기석 안철수 유성엽 이동섭	국민의당	
	강길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외교통일	김무성 김중석 서청원 원유철 윤영석 이주영 정양석 최경환 홍문종	새누리당	
	강창일 김경협 문희상 박병석 설 훈 심재권 원혜영 이석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선 이태규	국민의당	
	윤상현 추혜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 방	경대수 김영우 김학용 백승주 이종명 정진석	새누리당	2016. 6. 13.
	김병기 김진표 우상호 이종걸 이철희 진 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김중로 천정배	국민의당	
	김중대 이철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안전행정	강석호 김승희 박성중 박순자 유민봉 유재중 윤재옥 홍철호 황영철	새누리당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백재현 소병훈 진선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이용호 장정숙	국민의당	
	장제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권석창 김성찬 김태흠 이군현 이만희 이양수 이완영 홍문표	새누리당	
	김영춘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박완주 위성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중희 정인화 황주홍	국민의당	
	안상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산업통상자원	곽대훈 김규환 김기선 김정훈 유기준 윤한홍 이채익 이철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최연혜	새누리당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박재호 박 정 송기현 어기구 우원식 유동수 이찬열 이 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손금주 장병완 조배숙	국민의당	
	김종훈 홍의락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보건복지	강석진 김명연 김상훈 김순례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윤종필 이명수	새누리당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김동철 최도자	국민의당	
	윤소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환경노동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조원진 하태경	새누리당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이상돈	국민의당	
	이정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국토교통	김성태 김중태 김현아 박덕흠 박맹우 박완수 박찬우 이우현 이학재 이현승 정용기 정종섭 함진규	새누리당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토교통	강훈식 민홍철 안규백 안호영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임종성 전현희 조정식 최인호 황 희	더불어민주당	2016. 6. 13.
	윤영일 정동영 주승용 최경환	국민의당	
	이해찬 주호영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정 보	서청원(외) 원유철(외) 이완영(농) 이철우(산) 정진석(국)	새누리당	
	김병기(국) 우상호(국) 이인영(외) 조웅천(법)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법) 이태규(외)	국민의당	
여성가족	김명연(보) 김순례(보) 박인숙(보) 송희경(미) 신보라(환) 윤종필(보) 임이자(환)	새누리당	
	권미혁(보) 금태섭(법) 남인순(보) 문미옥(미) 박주민(안) 유은혜(교) 정춘숙(보)	더불어민주당	
	김삼화(환) 신용현(미)	국민의당	
	이정미(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강석진(보) 권석창(농) 김선동(정) 김한표(정) 민경욱(미) 박명재(기) 박성중(안) 박순자(안) 성일종(보) 송석준(보) 윤상직(법) 이은권(미) 이정현(교) 장석춘(환) 정운천(산) 조원진(환) 주광덕(법) 추경호(기) 하태경(환) 황영철(안)	새누리당	2016. 6. 13.
	김경협(외) 김두관(기) 김부겸(기) 김종민(기) 김진표(국) 김철민(농) 김태년(기) 김한정(농) 김현미(기) 박홍근(미) 서영교(법) 서형수(환) 오제세(보) 위성곤(농) 유동수(산) 이개호(농) 이상민(미) 이춘석(법) 전채수(교) 전현희(국토) 진선미(안)	더불어민주당	
	이용주(법)	국민의당	
	이철규(국) 장제원(안) 추혜선(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윤리특별	곽상도(교) 김기선(산) 金成泰(미) 이종명(국) 전희경(교) 정용기(국토)	새누리당	
	김병욱(교) 박재호(산) 백재현(안) 송옥주(환) 이언주(기) 표창원(안)	더불어민주당	
	김동철(보)	국민의당	
	김종훈(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보건복지	박인숙	새누리당	2016. 6. 15.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국민의당	
교육문화 체육관광	이장우	새누리당	2016. 6. 17.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송기석	국민의당	
여성가족	윤종필	새누리당	2016. 6. 17.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국민의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명연	김정재	새누리당	2016. 6. 17.
정 무	김도읍	김종석		
외교통일	김종석	김도읍		
안전행정	김승희	이명수		
보건복지	이명수	김승희		
여성가족	유은혜	박경미	더불어 민주당	2016. 6. 17.
국 방	천정배	김동철	국민의당	
보건복지	김동철	천정배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윤리특별	이연주	전혜숙	더불어 민주당	2016. 6. 17.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강길부	새누리당	2016. 6. 16.
안상수		
유승민		
윤상현		

○의안 제출

대한민국입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황희·박남춘·원혜영·정세균·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

6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오제세·최도자·신창현·김종회·황주홍·문미옥·이찬열·조정식·이철희·

김관영·정성호 의원 발의)

6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황희·박남춘·원혜영·정세균·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

6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김삼화·채이배·김관영·조배숙·신용현·박주선·유성엽·정동영·장정숙·황주홍·김경진·추미애·최도자·김광수 의원 발의)

6월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박남춘·전해철·김현권·김철민·안규백·신경민·김민기·박찬대·신창현·신동근·김경진·인재근·변재일·윤관석·민홍철·손혜원·노웅래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이장우·성일종·최연혜·김성원·오신환·홍일표·박덕흠·임이자·문진국·홍철호·박대출·이우현·이은권·김종태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김삼화·김광수·김관영·조배숙·신용현·박주선·유성엽·정동영·장정숙·채이배·황주홍·김경진·추미애·최도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기동민·인재근·권미혁·이철희·홍익표·우원식·전현희·이찬열·김영호·정춘숙·김병관·문미옥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기동민·인재근·권미혁·이철희·홍익표·우원식·전현희·이찬열·김영호·정춘숙·김병관·문미옥 의원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3. 기동민·인재근·권미혁·이철희·
홍익표·우원식·전현희·이찬열·김영호·
정춘숙·김병관·문미옥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6. 6. 13. 조경태·노용래·김경진·민홍철·
오신환·송석준·김삼화·강창일·황주홍·
송희경·강길부·신보라·함진규·정성호·
정유섭 의원 발의)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3. 황영철·박명재·정양석·안상수·
김기선·정병국·김진태·이철우·정용기·
김용태·박덕흠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3. 황영철·박명재·김기선·안상수·
정용기·정양석·정병국·김진태·이철우·
김용태·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3. 정성호·이찬열·박범계·임종성·
최도자·김동철·이춘석·이원욱·최인호·
이학영 의원 발의)

6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원혜영·고용진·김민기·김병기·
김현권·민병두·윤호중·이용득·이찬열·
최도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원혜영·고용진·김민기·김병기·
김현권·민병두·윤호중·이용득·이찬열·
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
김경협·장병완·조정식·박지원·주승용·
손금주·심재권·박선숙·김종희·유성엽·
최도자·김정우·정동영 의원 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박명재·이종배·황영철·정갑윤·
강석호·이학재·이철우·박맹우·김종태·
이은권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
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
심재철·김경진·최도자·정동영 의원 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박병석·김영주·박주민·제윤경·
정세균·김병관·최명길·이춘석·김영호·
서영교·정춘숙·강병원·진선미·김종민·
신경민·이철희·설훈·조승래·신창현·
문미옥·민홍철·위성곤·김영춘·임종성·
박남춘·노용래·전재수·김병기·심재권 의원
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제윤경·안규백·신경민·윤후덕·
문미옥·진선미·김두관·이재정·김현미·
설훈·이찬열·박찬대·김종대·홍익표·
황희·최명길·유동수·윤종오·최인호·
송옥주·박경미·조정식·김영춘·우원식·
전재수·양승조·서영교·이철희·김현권·
최운열·한정애·이학영·송영길·박남춘·
김경협·고용진·김병기·박영선·정동영 의원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익표·
윤후덕·이춘석·김경협·조정식·김성찬·
김태년·박남춘·정세균·이동섭·심재권 의원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이원욱·이찬열·우원식·윤호중·
이학영·서영교·김현권·박광온·김상희·
김경협·전해철·권미혁·변재일·한정애·
전현희·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7건 6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
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

김경진·최도자·정동영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
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
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
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
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5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박병석·이춘석·김영호·신경민·
이철희·조승래·신창현·박경미·문미옥·
민홍철·위성곤·김영춘·임종성·박남춘·
노웅래·김병기·심재권 의원 발의)

6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윤후덕·심재권·김병욱·김경협·
김민기·이철희·인재근·정세균·전해철·
박남춘·김경수·김병기·홍철호·박영선 의원
발의)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
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2016. 6. 14. 김경협·윤후덕·양승조·최명길·
김영호·임종성·소병훈·김병욱·이찬열·
김영춘·백재현·이원욱·유성엽·신동근·
박남춘·황주홍·김상희·박찬대·김정우·
기동민·김경진·문미옥·김현미·추미애·
김종민·안규백·유승희·심재권·박경미·
이학영·우원식·윤종오·변재일·조정식·
신창현·송기현·박영선·전재수·남인순·
김병기·이개호·위성곤·강병원·정성호·
김한정·한정애·윤관석·박홍근·이용득·
박정·도종환·최인호·전현희·안민석·
고용진·노웅래·금태섭·정춘숙·제윤경·
이철희·조승래·서형수·권미혁·서영교·
전혜숙·김철민·김현권·황희·백혜련·
진선미·박재호·김두관·박주민·최도자·
송영길·유은혜·정동영·이상민 의원 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
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10건 2016. 6. 14. 정부 제출)

이상 12건 6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변재일·이원욱·주승용·이연주·
도종환·남인순·박남춘·양승조·유승민·
김관영·민홍철·송영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
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
박주선·김성찬·김태년·정세균·이동섭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
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
박주선·김성찬·김태년·정세균·이동섭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정세균·이동섭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박주선·백재현·김성찬·김태년·황희·원혜영·정세균·이동섭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황희·원혜영·정세균·이동섭·김부겸·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김병욱·윤후덕·이원욱·김병관·신창현·이찬열·김현미·김태년·고용진·임종성 의원 발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한정애·김경협·인재근·우원식·원혜영·조정식·변재일·이학영·정성호·이인영 의원 발의)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2016. 6. 14. 박주선·홍익표·주승용·이동섭·이찬열·박홍근·안규백·김동철·백재현·황주홍·김관영·박지원·천정배·최도자·정동영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윤후덕·노웅래·안규백·김경협·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박정·인재근·박남춘·홍철호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정세균·이동섭 의원 발의)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2016. 6. 14. 김한정·김현권·임종성·소병훈·

김철민·서형수·설훈·김영호·권미혁·서영교·박홍근·어기구·김경진·강훈식·윤관석·오제세·이재정·김두관·박주민·민홍철·전혜숙·김정우·박찬대·이춘석·이원욱·황희·신동근·김경수·전재수·우원식·백재현·박영선·위성곤·조정식·표창원·박남춘·홍익표·백혜련·유은혜·김현미·문미옥·한정애·정춘숙·정성호·강병원·추미애·제윤경·추혜선·최도자·진선미·김태년·이용득·이훈·권칠승·박정·박경미·전현희·도종환·최인호·심재권·이학영·김종민·금대섭·윤후덕·이철희·남인순·김경협·김상희·고용진·신창현·이찬열·조승래·최경환(국)·윤호중·박지원·송기현·전해철·신경민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노웅래·조승래·박주선·주승용·김병관·이개호·박남춘·이재정·이찬열·김두관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4. 오제세·최도자·김종희·황주홍·이해찬·문미옥·이찬열·조정식·이철희·김관영·정성호·정동영 의원 발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안상수·정유섭·장병완·유성엽·박준영·박찬우·성일종·이학재·김석기·조훈현·신동근·황영철·박남춘·홍일표·김순례 의원 발의)

이상 9건 6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주광덕·강석호·이학재·김영우·이만희·성일종·유재중·정양석·조원진·염동열·金成泰·김성원·권석창·신상진·이완영·민경욱·최연혜·엄용수 의원 발의)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김승희·유재중·강효상·이완영·권성동·강석진·임이자·양승조·김명연·김규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14. 정부 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박주선·백재현·김성찬·김태년·박남춘·정세균·이동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한정애·김경협·변재일·우원식·원혜영·이인영·이학영·인재근·정성호·조정식·황희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박병석·이춘석·김영호·진선미·신경민·이철희·조승래·신창현·박주민·박경미·문미옥·민홍철·위성곤·김영춘·임종성·박남춘·노웅래·김병기·심재권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김삼화·김관영·김광수·김수민·박선숙·박주선·유성엽·이동섭·정동영·채이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오제세·신창현·김종희·황주홍·윤관석·문미옥·이찬열·조정식·이철희·김관영·정성호·심재권·정동영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6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추경호·김광림·홍문중·김순례·이학재·이완영·김상훈·곽대훈·박명재·

이종배·김정재·한선교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추경호·김광림·홍문중·곽대훈·김정재·한선교·이종배·박명재·이학재·김용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고용진·조정식·김병욱·윤후덕·원혜영·정성호·송영길·황희·박남춘·신경민·민홍철·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김학용·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세연·김용태·민홍철·성일중·정성호·정우택·정태욱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윤소하·손혜원·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주선·양승조·황주홍·유성엽·정동영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이동섭·김광수·김경진·박주선·최도자·김삼화·신용현·안규백·정동영·송기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남인순·변재일·위성곤·조정식·김정우·이학영·양승조·김현미·윤종오·유성엽·정동영·박남춘·원혜영·정성호·박영선·고용진·유동수·강병원 의원 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박주선·백재현·김성찬·김태년·황희·원혜영·정세균·심재권 의원 발의)

6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박남춘 정세균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정세균·이동섭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고용진·조정식·김병욱·윤후덕·원혜영·정성호·송영길·박남춘·한정애·진선미·신경민·금태섭·민홍철·안규백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이동섭·박주선·최도자·김삼화·황주홍·장병완·김관영·김중로·정동영·송기석·장정숙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박순자·김석기·김현아·곽대훈·강석호·문진국·장석춘·경대수·서청원·

김순례 의원 발의)

이상 9건 6월 1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남인순·이춘석·홍익표·우원식·변재일·김상희·이학영·권미혁·양승조·이찬열 의원 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2016. 6. 15. 최도자·주승용·조정식·변재일·이찬열·오제세·윤영일·윤후덕·황주홍·박주선·유성엽·채이배·박남춘·김중로·김종희·서형수·김현권·정동영·신용현·민홍철·김동철·이용주·김경진·김광수·이동섭·박주현·추혜선·김한정·박주민·원혜영·심재권·장정숙·김삼화·장병완·박준영·손금주·최경환(국)·박선숙·이태규·김수민·송기석·윤소하·조배숙·정인화·김성식·이상돈·김관영·박지원·오세정·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고용진·조정식·김병욱·윤후덕·원혜영·정성호·송영길·황희·박남춘·진선미·신경민·민홍철·안규백 의원 발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6. 6. 15.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5. 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6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6. 6. 16.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79인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자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2016. 6. 16.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79인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7월 4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2016. 6. 16.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의원 외 279인으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7월 5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박영선·윤후덕·윤관석·이찬열·오영훈·이춘석·제윤경·김성수·최명길·문미옥·도종환·심재권 의원 발의)

6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강석진·주광덕·이완영·권석창·김선동·정태옥·김승희·김명연·박명재·송석준·원유철 의원 발의)

6월 17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추경호·김광림·곽대훈·김정재·한선교·이종배·박명재·이학재·홍문중·조경태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박주민·김현권·우원식·신경민·안규백·진선미·이찬열·서형수·전재수·신창현·김영호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윤호중·이찬열·신경민·이학영·김상희·윤관석·최인호·김해영·박주민·김종민·원혜영·남인순·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이동섭·장병완·김광수·김경진·박주선·김삼화·황주홍·안규백·정동영·송기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장병완·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심재권·최경환(국)·김영우·김종희·유성엽·김경진·박선숙·최도자·김정우·정동영·박주민·유승민·이찬열·김진표 의원 발의)

6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이용호·주승용·김중로·신용현·박준영·유성엽·최도자·김광수·박주현·이동섭·김삼화·천정배·황주홍·최경환(국)·

정인화 · 장정숙 · 민병두 · 김관영 · 조정식 · 박지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16. 정부 제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2016. 6. 16. 조원진 · 윤재옥 · 홍의락 · 곽대훈 · 김상훈 · 김순례 · 강효상 · 정태욱 · 주호영 · 추경호 · 김부겸 · 주광덕 · 이완영 · 김정우 · 이양수 · 곽상도 · 김석기 · 정중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6. 6. 16.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2016. 6. 16. 남인순 · 변재일 · 박완주 · 위성곤 · 김병기 · 신창현 · 이춘석 · 이석현 · 박찬대 · 김정우 · 김현미 · 문미옥 · 윤관석 · 윤호중 · 김한정 · 정춘숙 · 송기현 · 진선미 · 민홍철 · 제윤경 · 김해영 · 박주민 · 이재정 · 유은혜 · 고용진 · 이철희 · 기동민 · 노웅래 · 김민기 · 윤후덕 · 박재호 · 백혜련 · 김경협 · 최명길 · 박범계 · 황희 · 홍익표 · 김영진 · 이원욱 · 김상희 · 설훈 · 조승래 · 김영호 · 권미혁 · 서영교 · 박남춘 · 김철민 · 소병훈 · 임종성 · 인재근 · 민병두 · 김종민 · 심재권 · 김태년 · 박홍근 · 도종환 · 이학영 · 최인호 · 이훈 · 박정 · 송옥주 · 박경미 · 전현희 · 조웅천 · 정성호 · 안민석 · 표창원 · 오영훈 · 이연주 · 원혜영 · 강창일 · 이찬열 · 우원식 · 김경수 · 박영선 · 한정애 · 강훈식 · 강병원 · 오제세 · 전해철 · 안규백 · 권칠승 · 박광온 · 김영춘 · 양승조 · 신동근 의원 발의)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6. 변재일 · 이원욱 · 주승용 · 노웅래 · 이연주 · 도종환 · 안규백 · 남인순 · 박남춘 · 양승조 · 유승민 · 김관영 · 민홍철 · 송영길 · 박주민 의원 발의)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6. 이완영 · 민홍철 · 김경수 · 김종태 · 이정현 · 추경호 · 여상규 · 김성찬 · 윤영석 · 강석진 · 엄용수 · 이용주 · 안호영 · 이용호 · 주승용 · 이명수 · 정인화 · 이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박명재 · 김세연 · 이종배 · 권석창 · 엄용수 · 김종태 · 추경호 · 박성중 · 김광림 · 이학재 · 강석진 · 김석기 · 박맹우 · 곽대훈 · 박덕흠 · 경대수 · 강효상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김관영 · 김경진 · 김광수 · 김동철 · 김병관 · 김삼화 · 박주선 · 박준영 · 신용현 · 오제세 · 유성엽 · 이동섭 · 이용호 · 이종걸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조배숙 · 조정식 · 주승용 · 최경환(국) · 최도자 · 황주홍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경대수 · 정태욱 · 송석준 · 정유섭 · 엄용수 · 김선동 · 박덕흠 · 이종명 · 신보라 · 김현아 의원 발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경대수 · 정태욱 · 송석준 · 정유섭 · 엄용수 · 윤한홍 · 김선동 · 이명수 · 박덕흠 · 이종명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김병관 · 우원식 · 김민기 · 제윤경 · 기동민 · 황희 · 권칠승 · 김종민 · 설훈 · 표창원 · 김현미 · 추미애 · 김태년 · 김관영 · 김병욱 · 문미옥 · 서영교 · 최명길 · 정춘숙 · 김두관 · 김정우 · 강병원 · 김영주 · 심재권 · 이학영 · 윤관석 · 김영진 · 노웅래 · 전해철 · 김병기 · 김해영 의원 발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김병관 · 우원식 · 김민기 · 제윤경 · 기동민 · 황희 · 권칠승 · 김종민 · 설훈 · 표창원 · 김현미 · 추미애 · 김태년 · 김관영 · 김병욱 · 문미옥 · 서영교 · 최명길 · 정춘숙 · 김두관 · 김정우 · 강병원 · 김영주 · 심재권 · 이학영 · 윤관석 · 김영진 · 노웅래 · 전해철 ·

김병기 · 김해영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김병관 · 우원식 · 김민기 · 제윤경 · 기동민 · 황희 · 권칠승 · 김종민 · 설훈 · 표창원 · 김현미 · 추미애 · 김태년 · 김관영 · 김병욱 · 문미옥 · 서영교 · 최명길 · 정춘숙 · 김두관 · 김정우 · 강병원 · 심재권 · 이학영 · 윤관석 · 김영진 · 김병기 · 김해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윤관석 · 윤후덕 · 김철민 · 신경민 · 이찬열 · 박주민 · 조정식 · 박경미 · 박남춘 · 노웅래 · 김민기 · 송영길 · 윤희중 · 박영선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송석준 · 김광립 · 김종태 · 경대수 · 황주홍 · 강석진 · 임종성 · 장제원 · 홍철호 · 주광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17. 정부 제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강길부 · 엄용수 · 안상수 · 이완영 · 박맹우 · 김광립 · 문진국 · 이채익 · 정갑윤 · 조경태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강길부 · 엄용수 · 안상수 · 이완영 · 박맹우 · 김광립 · 문진국 · 이채익 · 정갑윤 · 조경태 의원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강길부 · 엄용수 · 안상수 · 이완영 · 박맹우 · 김광립 · 문진국 · 이채익 · 정갑윤 · 조경태 의원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강길부 · 엄용수 · 안상수 · 이완영 · 박맹우 · 김광립 · 문진국 · 이채익 · 정갑윤 · 조경태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17. 정부 제출)

이상 6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박경미 · 김경협 · 김민기 · 진선미 · 김해영 · 김종대 · 변재일 · 조승래 · 문미옥 · 서영교 · 도종환 · 안민석 · 김관영 · 유은혜 · 이개호 · 손혜원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박경미 · 김경협 · 김민기 · 김해영 · 홍의락 · 변재일 · 조승래 · 서영교 · 안민석 · 김관영 · 이개호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박경미 · 김경협 · 김민기 · 김해영 · 홍의락 · 변재일 · 조승래 · 서영교 · 안민석 · 김관영 · 이개호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찬열 · 위성곤 · 박영선 · 안규백 · 신경민 · 최도자 · 김해영 · 윤희중 · 설훈 · 민병두 · 김동철 · 황주홍 · 박정 · 김경협 · 기동민 · 김정우 · 고용진 · 박용진 · 김현미 · 강훈식 · 원혜영 · 이춘석 · 김관영 · 김경수 · 김종희 · 주승용 · 권은희 · 이철희 · 이석현 · 오제세 · 남인순 · 황희 · 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박경미 · 김경협 · 김민기 · 진선미 · 김해영 · 김종대 · 변재일 · 조승래 · 서영교 · 도종환 · 안민석 · 김관영 · 유은혜 · 이개호 · 손혜원 의원 발의)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도종환 · 조승래 · 박영선 · 이찬열 · 변재일 · 오제세 · 윤소하 · 김종대 · 박정 · 박주민 · 유성엽 · 권석창 · 한정애 · 이종배 · 심재권 · 전재수 · 박덕흠 · 김기선 · 양승조 · 정우택 · 주승용 · 노회찬 · 경대수 · 박주선 · 이인영 · 조배숙 · 이원욱 · 엄동열 · 박완주 · 박병석 · 박범계 · 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김관영 · 이동섭 · 유성엽 · 김경진 · 정동영 · 이상돈 · 최경환(국) · 이찬열 · 오제세 · 박준영 · 장병완 · 장정숙 · 박주선 · 채이배 · 김삼화 · 박주현 · 이용호 · 주승용 · 김병관 · 김광수 · 이종걸 · 황주홍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김관영 · 김경진 · 김광수 · 김병관 · 김삼화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오제세 · 유성엽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호 · 이종걸 · 이찬열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주승용 · 채이배 · 최경환(국) · 황주홍 의원 발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김관영 · 김경진 · 김광수 · 김병관 · 김삼화 ·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오제세 · 유성엽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호 · 이종걸 · 이찬열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 주승용 · 채이배 · 최경환(국) · 황주홍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찬열 · 위성곤 · 윤호중 · 박영선 · 안규백 · 신경민 · 김관영 · 최도자 · 김해영 · 노용래 · 설훈 · 김동철 · 박정 · 원혜영 · 이춘석 · 주승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김관영 · 이동섭 · 유성엽 · 김경진 · 정동영 · 이상돈 · 최경환(국) · 이찬열 · 오제세 · 박준영 · 장병완 · 장정숙 · 박주선 · 채이배 · 김삼화 · 박주현 · 이용호 · 주승용 · 김병관 · 김광수 · 이종걸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6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중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17. 정부 제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위성곤 · 홍문표 · 황영철 · 오제세 · 이개호 · 이찬열 · 백재현 · 윤후덕 · 박홍근 · 김관영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위성곤 · 홍문표 · 황영철 · 오제세 · 이개호 · 이찬열 · 백재현 · 박홍근 · 윤후덕 ·

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박경미 · 김정협 · 김민기 · 진선미 · 김해영 · 김종대 · 조승래 · 문미옥 · 서영교 · 김관영 · 이개호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인영 · 김경진 · 한정애 · 문미옥 · 우원식 · 황희 · 인재근 · 임종성 · 박남춘 · 윤후덕 · 김민기 · 설훈 · 김정우 · 송영길 · 진선미 · 민홍철 · 심재권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인영 · 김경진 · 한정애 · 문미옥 · 우원식 · 황희 · 인재근 · 임종성 · 박남춘 · 윤후덕 · 김민기 · 송영길 · 진선미 · 심재권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인영 · 문미옥 · 우원식 · 인재근 · 임종성 · 박남춘 · 윤후덕 · 김민기 · 설훈 · 김정우 · 송영길 · 진선미 · 민홍철 · 심재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철희 · 금태섭 · 이훈 · 위성곤 · 기동민 · 오영훈 · 강병원 · 김종대 · 송기현 · 박정 · 채이배 · 김경수 · 권미혁 · 김경진 · 조승래 · 박용진 · 강훈식 · 황희 · 임종성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신상진 · 김상훈 · 김학용 · 박찬우 · 이우현 · 이종배 · 정우택 · 주광덕 · 주호영 · 함진규 의원 발의)

이상 5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추경호 · 광대훈 · 광상도 · 정중섭 · 조원진 · 김광림 · 윤재욱 · 최경환(국) · 정태욱 · 김관영 · 홍의락 · 김부겸 · 유승민 · 주호영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요청서 제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0대 위원 지명의 건

(2016. 6. 13. 정부 제출)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의 건

(2016. 6. 16. 독립기념관장 제출)

○추천의뢰서 제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추천의 건

(2016. 6. 14.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제출)

○계획서 제출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2016. 6. 13. 정부 제출)

○보고서 제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16. 6. 15. 문화체육관광부

2016. 6. 17. 국군기무사령부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겠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국회감사요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 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6. 6. 16. 감사원장 제출)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6. 6. 16. 감사원장 제출)

6월 16일 국방위원회에 송부